

정년 연장·탄력근로제...지역 경제계 심상찮다

기아차 '육체노동자 정년 연장' 임금 협상안 포함
금호타이어 단체교섭안 부결 이어 최저임금 소송

지역 경제계가 심상치않다. 기아차는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뿐 아니라 '육체노동자 정년 연장'을 임금 협상안에 포함하겠다는 노조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현대차와 공동으로 '광주형 일자리 철폐'를 위한 '3년 투쟁' 계획마저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금호타이어도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최저임금법 개편과 관련, 노조가 소송을 검토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계 이슈를 중심으로 총파업과 전국 노동자대회 등 3월 '춘투' (春鬪)로 돌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년연장, 노동계 이슈로=27일 전국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육체노동시간 연장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9년 임

금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이후 '정년 연장 문제와 노동가동연한은 별개'라는 산업계 시각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생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산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기아차노조가 관련 안전을 임금협상에 연계키로 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또 현대차노조와 '광주형 일자리 철폐'를 위한 '3년 투쟁'에 돌입한

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 방안과 관련된 노사간 간극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요인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임금·단체협상 부결, 최저임금법 소송까지=금호타이어도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에 이어 노조의 최저임금 위반 소송 움직임으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27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범위·환산 과정에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관련 사례를 수집 중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를 수합해 행정절차와 함께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앞서 노사간 마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이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긴장 분위기가 여전하다. 7분기 연속 적자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단체교섭, 최저임금법 갈등이 지속한 경영 정상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와 수수료 마찰도=3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상 방침도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개 카드사는 현대·기아차,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뒤 현대·기아차와 롯데백화점 등은 반대 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1.8%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를 1.9% 중반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고 롯데백화점도 수수료를 인상을 통보받았다.

카드사들은 3월부터 올린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현대차와 수수료를 협상을 거쳐 합의한 수수료가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이를 추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협상안 타결 이후에 수수료를 인상분을 적용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한편,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자칫 카드사와의 마찰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측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고 반사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4.79 (+8.19)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1)
▲ 코스닥	752.16 (+5.07)	▲ 환율 (USD)	1119.10 (+0.50)



광주은행 Y통장·Y적금 가입 이벤트 4월말까지 연장

출시 3달만에 1만좌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출시 3달 만에 1만좌를 돌파한 Y통장·Y적금의 신규가입 이벤트를 오는 4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출시한 Y통장·Y적금은 유스(youth)고객 전용 상품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첫 목돈마련 플랜을 지원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Y통장·Y적금 신규 가입이벤트는 ▲ 'Y통장' 신규가입고객 중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거나, 자동화 기기나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선착순 5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 ▲ 'Y적금' 가입고객에 대하여 신규 이벤트 우대금리 연 0.9%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Y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18세부터 만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

체 수수료와 광주은행 및 GS25편의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통화(USD, JPY, EUR) 환전 시 50% 환율이 우대된다.

'Y적금'은 유스고객의 첫 목돈마련 플랜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18세부터 만35세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다. Y적금의 기본금리는 1년제 연 2.0%, 2년제 연 2.2%이며, 각종 우대금리와 이벤트금리를 합산한 최고금리는 2년제 기준 연 3.7%의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Y통장과 Y적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유스(Youth)고객을 응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품 및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관광공사 다음달 8일까지 접수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월8일까지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

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40만원의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면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가족화인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은 일주일 동안 4만4000명(3766개사)을 넘었다. 광주는 1299명(107개사), 전남은 1413명(116개사)이 신청했다(19일 기준).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여행 전용 운라

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70-133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 경제자문위원회 출범

민간 싱크탱크 역할 강화

광주상공회의소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법위 등과 관련, 지역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원대책 마련 등 주요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현안 대응, 회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이룰 '싱크탱크'인 경제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의는 이날 경제·지역개발·법률·노동·조세·금융 등 6개 분야에서 송기석 전 국회의원, 최지호 전남대 경영대학장, 송경용 동신대 교수,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한 세무사, 신광교 공인노무사, 신양진 공인회계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의는 이들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과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보면 상의가 분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하이트진로-신안군 지역발전 홍보 업무 협약

하이트진로(주)는 지난 25일 신안군청 회의실에서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하이트진로 호남권역 상동숙분부장 등이 참석해 신안군 발전과 지역홍보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상호간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기로 했다. 특히 군에서 올해 진행할 '1004섬 신안 축제' 홍보시 하이트진로 제품 보조라벨에 신안군 축제 문구를 삽입해 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이트진로가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상가 공실 급증에 권리금도 떨어져

광주·전남지역 상가 공실(空室)이 급증하면서 권리금도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 경기 침체로 한계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전문기업인 상가정보연구소는 27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상가 권리금은 2017년 ㎡당 74만9000원에서 지난해 68만4000원으로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한다. 장사가 잘 돼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이다.

광주의 경우 ㎡당 48만5000원(2017년)에서 47만4000원(2018년)으

로 2.3% 떨어졌고 여수도 ㎡당 28만9000원(2017년) 수준이던 권리금이 지난해에는 27만8000원대로 3.8%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세 상인들이 주로 찾는 소형 상가 공실률의 경우 광주는 4.3%로, 연초(2.0%)보다 2.3%나 뛰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2.2%로 전국 평균(10.8%)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전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3.8%로 급등했고 소규모 상가는 6.8%의 공실률을 기록했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적인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매출이 줄고 공실상가가 속출하면서 권리금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8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대상

한눈에반한쌀

해남옥천농협



최우수상

대숲맑은쌀

담양금성농협



우수상

나비쌀

함평군농협



우수상

황토랑쌀

무안군농협



우수상

수호천사건강미

고흥홍양농협



장려상

프리미엄호평

강진군농협



장려상

세계절이사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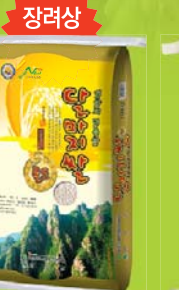
영광군농협



장려상

녹차미인쌀

보성군농협



장려상

달마지쌀골드

영암군농협



장려상

갯벌여문쌀

북신안농협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